새만금 공사 재개 법원 1심 결정 뒤집어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1월 29일 새만금 공사 집행정지 결정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농림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국책사업이 유보될 뿐 아니라 다량의 방조제 토석이 유실되고 유실방지 보강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방조제 붕괴가능성까지 있어 오히려 공사중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할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남동우 기자

삼보일배 지지 성명 통영환경연합

통영환경운동연합이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며 삼보일배 하고 있는 환경 스님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1월 26일 발표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통영시는 지금이라도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취하하는 것이 미륵산의 안녕과, 통영의 경제를 생각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은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에 대해서도 "통영의 큰 산 미륵산을 지킬 책무가 있는 용화사 주지는 뒤에서 미륵산을 개발해 달라는 청원을 내서 수많은 통영시민들과 불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며 주지직에서 물러날 것을 권고했다. 남동우 기자

북한산 관통저지 연석회의 공사현장 모니터링 집중

북한산국립공원 · 수락산 · 불암산 관통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1월 27일 서울시내 모 식당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후 국립공원 제도 개선과 공사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도로정책과 관련해서는 도로포럼과 협력해 정책 제안을 내오기로 했다.

또 조계종 총무원장 면담 추진과 정부의 북한산 관통 결정에 대한 연석회의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남동우 기자

동국대 스승은 "기회 닿으면 떠나고 싶다" 제자는 "위상 낮아 소외감 크다"

교수 · 불교대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교수 절반 "보수 더 주면 옮기겠다"

'기회만 닿는다면 동대를 떠나고 싶다.'

동국대 교수 5명 중 4명은 현재의 보수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이 때문에 타 대학 혹은 직종으로 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염준근 교수, 통계학과)가 교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3~12일 서울과 경주 캠퍼스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 180명(전체 교수는 3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불만족 40.5%, 매우 불만족 37.1%)가 현재 보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절반이 넘는 교수(51.1%)가 다른 대학이나 직종으로 옮길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수진 허리에 해당하는 조교수 · 부교수의 경우 60% 이상이 이 같이 응답했다.

이번엔 질문을 바꿔 다른 대학에서 보다 나은 보수를 제시한다면 옮겨가겠느냐고 묻자 53.9%가 떠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앞 질문과 마찬가지로 조교수(58.3%) · 부교수(66.1%) 중 이렇게 답한 사람이 교수(45.3%), 전임강사(36.4%)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았다.

교수회장 염준근 교수는 "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들을 확보해야 하나 최근 들어 우수한 교수들이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연구 환경 등의 문제로 경쟁대학으로 옮겨가는 등 대학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져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부는 아니지만 이직의 제일 큰 원인은 보수"라고 말했다.

염 교수는 "지난해 전임강사를 뽑는데 3명밖에 지원 안 해 적당한 사람이 없어 안 뽑은 경우가 있다"며 "교수 지원율이 낮고 학교를 옮기려 한다는 것은 학교 발전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불교대 학생 95% "커리큘럼 변해야"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취임하면서 불교생태학을 특성화시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불교학이야말로 동국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학문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나 막상 불교대학 학생들은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가 불교대 학생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12월 실시한 '불교대학 수업과 진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불교대 학생 10명 중 7명(71.1%)이 동국대 내에서 불교대학의 위상이 낮거나(62.7%) 매우 낮다(8.4%)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교대학 학생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편견의 대상이 되어 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도 절반(45.5%)에 가까웠다.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의 정체성 위기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문제다. 재학생 200여 명(스님 학생 제외) 중 61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는 최근 발간된 <석림> 제37집에 일부 내용이 실렸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47.8%가 불교대학을 다니면서 처하게 된 가장 큰 고민으로 진로 문제를 들었다. 다른 단과대를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불교대를 졸업한 학생이 취업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3명 중 1명이 넘었다(매우 그렇다 8.4%, 그렇다 28.9%). 불리한 이유로는 각광받지 못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19.3%)이 가장 높았고, 자신의 노력부족(10.8%)과 학교의 무관심(9.6%)이 비슷하게 나왔다.

불교대의 커리큘럼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학생이 응답자의 95.1%(아주 그렇다 40.2%, 그렇다 54.9%)에 달했는데, 2명 중 1명(48.1%)이 현 사회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불교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학생들은 커리큘럼의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권형진 기자

동국학원 새 이사장 현해 스님 풀어야 할 과제 많다

현해 스님이 1월 27일 동국학원 새 이사장에 추대됐지만 앞으로의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아 보인다. 당장 풀어야 할 현안들이 도처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우선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불교계의 '뜨거운 감자'인 일산 불교종합병원 개원 문제다. 당초 2002년 안에 개원하려고 했던 불교병원은 2003년 6월, 2005년 3월로 개원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학교 신인도 하락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만큼 병원 개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고, 홍기삼 총장도 "경영 컨설팅 결과 2008년부터는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병원 개원을 위한 정관 개정은 1년 넘게 이사회를 통과 못해 개원 문제는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일산병원 개원 연기
불교대 위기론 대두 등
지혜롭게 풀어야

'전멸'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론이 고착화된 불교대학도 비껴갈 수 없는 화두다. 1996년 '대학원 중심 대학' 선언 이후에도 대학원 전담 교수 한 명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진로 고민과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은 학부 · 대학원생 모두에게 쌓여 있다. 동국대가 세계적인 불교학 연구의 중심 대학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현재 5명뿐인 불교문화연구원의 확대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2006년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이후 10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새 이사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한 대학의 특성화, 대내 · 외적인 재정확보 노력, 연구풍토 및 학풍 쇄신, 종단과 재단 · 학교 간 신뢰 회복 등을 함께 풀지 않고서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지관 스님과 현해 스님 중 누구를 추대할 것인가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토론 벌인 이사회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권형진 기자

총무부 직원들이 새청사(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삿짐을 풀며 정리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새 청사 이전

조계종 총무원이 1월29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새 청사 입주를 마무리하고 2월 16일 경 입주식을 갖는다.

1월 27일에는 총무부, 재무부, 호법부, 종회사무처가 현 총무원 청사에서 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사를 마무리했고, 28일에는 기획실, 사회부, 문화부 등이 입주했다. 그리고 29일에는 이사짐 정리를 마무리하고 30일부터 새 청사에서 종무행정에 들어갔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9일 새 청사에 입주할 예정이며, 교육원은 별관공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쯤 입주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미결수 종교활동 허용 촉구

국가 인권위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 허가를 1월 27일 법무부장관과 대전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대전교도소에 수용중인 불자 문모 씨(30)가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교도소내 종교교육 및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3년 8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일체 이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대전교도소는 미결수용자에게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불허하는 이유에 대해 △기결수형자에 반해 미결수용자는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며 △행형법상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는 분리 수용하도록 되어 있고 △종교집회 참가를 위해 구금시설 내에서 미결수용자 다수가 회동하게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 · 공범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 시설 및 인력 등을 감안할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의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밝혀왔다. 남동우 기자

"문화재관람료 돌려줘라" 금당사신도 탑사에 승소

진안 금당사(주지 성호) 신도들이 문화재관람료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며 진안 탑사(주지 왕선)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1월 29일 이모 씨 등 2명이 진안 탑사측에서 징수한 관람료 600원이 부당하다며 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 항고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600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찰의 문화재인 석탑을 관람할 의사나 행위가 없었음은 물론 석탑의 관람에 대한 외부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서 관람료를 징수한 사찰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원고 이씨 등 금당사 신도들은 2001년 10월 14일 금당사만 들렀지 탑사측 소유 석탑은 보지 않았다고 같은해 11월에 소를 제기했다.

밝은 청정 맑은 햇살로 빚은
금강경 메주 불사

금강경 독송회에서는 참석비가 내려앉는 음력 10월이면 매년 메주를 만들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메주 불사를 합니다.

금강경 복 메주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금강경 7독과 정진을 하면서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정진의 기운과 정성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복 메주는 100% 우리콩을 가마솥에 삶을 때 솔잎과 장작을 이용하며, 따스한 햇볕과 바람, 그리고 황토로 만든 흙집에서 40일간 자연발효시킨 전통 무공해 메주입니다.

해마다 드셔보신 분들마다 옛 뚝배기 맛 그대로 배어있어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 메주 1말 6kg
■ 청기름과 된장(죽염), 고추장, 조림간장, 국간장, 청국장

메주 주문 연락처 H·P : 019-820-5587
포항 054)261-2231 서울 02)742-0172
부산 051)514-3566 대구 053)425-3063
울산 052)245-0337 대전 042)862-8638
창원 055)299-5419 수원 031)253-2677
군산 063)452-7852 광주 062)681-3268
강릉 033)644-9009

복식품

제9회 선우논강 안내

"초기불교의 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

선우논강은 부처님 유언에 따라 법을 토론하고 탁마하는 공부모임입니다. 문중과 본사, 비구, 비구니의 차이를 극복하고 일불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 한국불교의 수행, 교학, 포교 등 교단 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과 수행의 마당입니다. 선우논강은 1년에 2차례 해제 후에 열리게 됩니다.

제9회 선우논강의 주제는 "초기불교의 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입니다.

현대 한국불교 교단 내에서 이부중의 문제, 즉 비구, 비구니의 위상과 관계는 많은 문제와 혼란에 봉착해 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조류와 기존의 계율, 승가의식상의 괴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제9회 선우논강에서는 이 문제를 초기불교의 현장으로 돌아가 살펴보고 오늘날 바람직한 이부중의 관계를 정립해보고자 합니다.

제방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8(2004)년 2월 16일(월) 저녁 6시 ~ 10시
■ 장 소 : 지리산 실상사
■ 주 제 : 초기불교의 二部衆과 바람직한 오늘의 승가상

● 기조강연 : 도법(실상사)
● 발 제 : 법인(대흥사 수련원장)
● 논 평 자 : 혜능(해인사 율원장), 진오(구미 대둔사 주지)
● 대 상 : 조계종 비구, 비구니
● 참 가 비 : 2만원
● 준 비 물 : 대가사
● 문 의 : 선우논강 사무실 (02-3676-4060), 실상사 (063-636-3031)

■ 선우논강 후원계좌 : 우체국 704296-02-018502 (예금주 장영기)
※ 제9회 논강 발제문 및 논평문은 인터넷 다음카페 '선우논강' (http://cafe.daum.net/nonkang) 자료실에 있습니다.

선우논강 대중일동
선우논강 실행선우 대표 철 오